

Blackmagic Design

Blackmagic Video Assist 3.1 및 Blackmagic RAW 1.7 업데이트 발표



Blackmagic Video Assist 3.1 및 Blackmagic RAW 1.7 업데이트는 새로운 Blackmagic Video Assist 12G 모델에서 Panasonic EVA1 및 Canon C300 MK II 카메라의 Blackmagic RAW 포맷 녹화 기능을 지원한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Blackmagic RAW 워크플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후반 작업의 제작 수준과 창의성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Blackmagic Video Assist 3.1은 메타데이터 입력 기능 또한 지원해 대형 프로덕션 작업 시 현장에서 슷을 로깅 및 태깅하여 미디어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Blackmagic Video Assist 3.1 및 Blackmagic RAW 1.7 업데이트는 지금 Blackmagic Design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Blackmagic Video Assist 3.1 업데이트

새로워진 Blackmagic Video Assist 12G HDR은 모든 SDI 또는 HDMI 카메라에 HD/UHD/2K/4K DCI 포맷의 전문 모니터링 및 녹화 기능을 추가한다. 새로운 디자인의 Blackmagic Video Assist 12G는 HDR 작업에 맞게 훨씬 밝아진 화면, 탈리 표시기, 4개의 내장 스코프, 향상된 포커스 어시스트 기능, 3D LUT, 네이티브 Blackmagic RAW 녹화 기능 등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5인치와 7인치 모델 모두 12G-SDI 및 HDMI 2.0을 탑재하여 거의 모든 종류의 장비에서 최대 2160p60의 모든 포맷으로 녹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훨씬 밝아진 터치스크린을 통해 HDR 디지털 영화 녹화 영상을 볼 수 있고 한낮에 야외에서 촬영할 때도 촬영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새로운 디자인의 이번 신규 모델은 배터리 기능 또한 향상되었고, 두 개의 소니 표준형 L 시리즈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활용도를 갖춘 Blackmagic Video Assist 12G는 차세대 디지털 영화 촬영, 라이브 프로덕션 마스터링, 방송 테스트 및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으로 볼 수 있다.

일부 디지털 필름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후반 제작에 적합한 로그 색공간을 출력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 볼 때는 채도가 낮고 색이 바랜 것처럼 느껴진다. 3D LUT를 사용하여 모니터에 영상록을 적용하면 편집이 끝났을 때의 최종 이미지를 미리 짐작할 수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LUT는 모니터 링에만 일시적으로 적용해 사용하거나, Blackmagic RAW 파일에 함께 녹화하여 후반 작업에서 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 Video Assist는 업계 표준인 17/33 포인트 3D LUT 파일을 지원하며, Extended Video 및 Film to Video, Film to Rec.2020 등의 내장 LUT도 사용 가능하다.

Video Assist는 개방형 표준 파일 포맷을 사용하므로 미디어 파일을 트랜스코딩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업계 표준인 10비트 ProRes, 또는 DNx 파일의 모든 포맷으로 녹화할 수 있으며, 모든 HDMI/SDI 카메라 또는 Blackmagic RAW를 지원하는 카메라라면 12비트 Blackmagic RAW로 녹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생성된 미디어 파일은 모든 운영체제에서 작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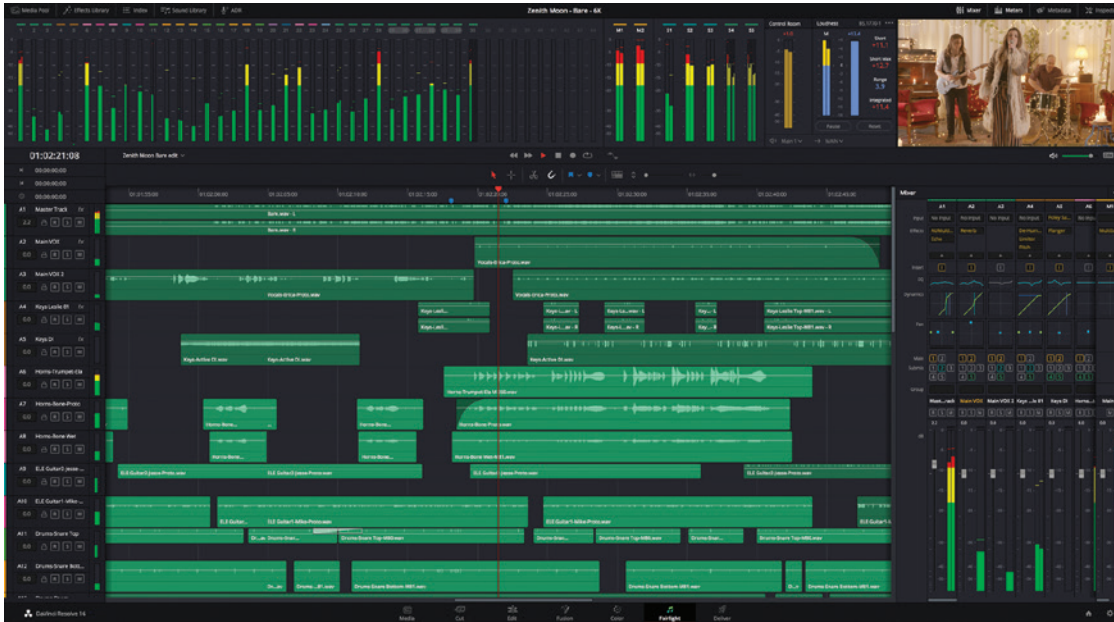
Blackmagic RAW 1.7 업데이트

Blackmagic RAW는 혁신적인 신규 포맷으로서 카메라의 센서가 받아들인 센서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한다. Video Assist는 Panasonic EVA1이나 Canon C300 MK II 같은 인기 카메라에서 Blackmagic RAW 포맷으로 녹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H.264 같은 인기 포맷에서 고압축으로 인해 노이즈와 아티팩트가 많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 설정 및 디지털 슬레이트 정보가 메타데이터로 저장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집 작업 시 화질 손실에 대한 염려 없이 컬러 및 노출을 훌륭하게 제어할 수 있다. Blackmagic RAW 파일은 크기가 작고 속도가 매우 빨라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Blackmagic Video Assist 3.1 및 Blackmagic RAW 1.7 업데이트 내용

- 모니터링 및 녹화 시 3D LUT 적용 가능
- 인기 소프트웨어와 호환 가능한 표준형 오픈 파일 포맷 지원
- Blackmagic RAW가 지원되는 타사 카메라에서 Blackmagic RAW로 촬영 가능

Blackmagic Design, DaVinci Resolve 16.2 출시



Blackmagic Design은 편집/색보정/시각 효과/오디오 후반 제작 소프트웨어 DaVinci Resolve의 신규 업데이트인 DaVinci Resolve 16.2를 출시했다. 이번 신규 업데이트를 통해 수많은 색보정 및 편집 관련 기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어 모든 사용자에게 업데이트가 권장된다. DaVinci Resolve 16.2는 지금 Blackmagic Design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번 신규 업데이트에는 Fairlight 오디오 타임라인에서 마우스 및 키보드를 사용해 편집할 수 있는 새로운 주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 편집 선택 모드를 통해 기존에는 풀사이즈 Fairlight 콘솔의 오디오 에디터에서만 지원되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편집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졌다. 이번만 아니라 편집 선택 모드에서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페이드 및 컷을 추가하고 클립을 이동할 수도 있으며, 확장 가능한 신규 파형을 통해 볼륨을 조절하지 않고도 파형을 zoom할 수 있다. 바운싱 기능을 지원해 Fairlight 타임라인에서 직접 사용자가 원하는 음향 효과로 클립을 렌더링할 수 있다.

이제 클립을 수평 방향뿐만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도 추가할 수 있어 여러 개의 클립도 한 번에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다. 여러 멀티채널 트랙을 타임라인 내 연결 그룹으로 직접 변환할 수 있어 더 이상 클립을 수동으로 변경해 다시 불러올 필요가 없다. 프레임 테두리 편집지원 기능이 추가되어 필름 및 방송 딜리버리 시 파일 익스포트 호환성이 향상되었다. 정확한 프레임 테두리 편집 기능을 지원해 타임라인을 확대하지 않고도 프레임 테두리를 손쉽게 트리밍할 수 있다. 모디파이어 키가 지원되어 키보드 및 마우스를 사용해 타임라인에서 클립을 직접 복제할 수 있다. 여러 개의 타임라인을 오가며 클립을 손쉽게 복사할 수도 있다.

DaVinci Resolve 16.2는 또한 메타데이터 기반의 검색 기능이 추가된 Blackmagic Fairlight Sound Library를 지원해 파

일명을 몰라도 음향 효과를 검색할 수 있다. 검색 결과도 파일명 및 관련 설명과 함께 나타나 그 어느 때보다 쉽고 빠르게 완벽한 음향 효과를 검색할 수 있다.

오디오 효과 역시 자동 분류 기능을 통해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다. 먼저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다음 네이티브 또는 서드 파티 플러그인 별로 다시 분류한다. 이들 효과는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도 있는데, 해당 효과가 목록 맨 위에 나타나 아주 쉽게 검색 가능하다. MPEG-H 3D 몰입형 서라운드 오디오 버스 및 모니터링 워크플로도 지원된다. 이뿐만 아니라 패닝 및 밸런스 속성이 개선되어 패닝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



폭넓은 Fairlight 오디오 편집 기능의 색인 기능 또한 향상되었다. 이제 Fairlight 페이지에서도 다른 페이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편집 색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된 모든 미디어의 목록이 나타나 간단히 클립을 클릭하기만 하면 실제 타임라인 상의 위치로 직접 이동한다. 이제 트랙 색인에서는 음소거, 솔로, 녹화 활성화/잠금, 시인성 컨트롤을 드래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들이 트랙을 하나씩 클릭하지 않고도 여러 트랙을 드래그해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오디오 트랙 역시 트랙 색인에서 개별 트랙 혹은 트랙 그룹을 클릭 및 드래그해 재배열할 수 있다.

이번 신규 업데이트를 통해 AAF 임포트 및 익스포트 기능 역시 개선되었다. AAF 지원 기능이 개선되어 AAF 시퀀스를 현재 사용 중인 타임라인에 직접 불러올 수 있다. 게다가 프로젝트의 시간 단위가 다를 경우, 매칭되는 오프셋 값이 담긴 AAF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여러 채널이 담긴 AAF 파일은 연결된 그룹으로 자동 인식된다. AAF 익스포트 기능 역시 개선되어 이제 업계 표준의 방송 음향 파일을 지원한다. Fairlight에서 익스포트한 AAF 파일에 오디오 크로스 페이드 및 페이드 핸들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인식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존 Fairlight 사용자들이 오래된 Fairlight 프로젝트를 불러오는 데 필요한 주요 성능을 개선시킨다. 1000개 이상의 파일을 여는 속도가 향상되어 프로젝트를 불러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단축되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오디오 믹싱 성능 또한 향상시킨다. 클립 EQ를 위한 신규 EQ 커브 프리셋이 인스펙터에 추가되어 문제가 되는 주파수를 제거할 수 있다. 새로운 FairlightFX 필터에는 신규 미터 플러그인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트랙 또는 버스를 위한 플로팅 미터를 추가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패널이나 믹서가 비활성화되어 있어도 항상 레벨을 확인할 수 있다. LFE 필터는 저음역대의 서라운드 음향 믹싱 시 고음역대를 부드럽게 롤오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Fairlight 오디오 에디터를 사용하는 몰입형 오디오 워크플로가 개선되어 이제 상하 패닝 전용 컨트롤이 탑재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에디터 패널에서 인스펙터에 있는 클립 EQ를 변경할 수 있다. 기능 복사 및 붙여넣기 기능이 개선되어 이제 EQ, 자동화, 클립 게인 등의 모든 속성을 복사할 수 있다. 음향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워크플로를 설정할 수 있어, EQ 클립을 위한 자신만의 프리셋 생성 및 적용이 가능하다. 플러그인 파라미터를 사용자 지정 또는 추가할 수 있어 사용자들이 원하는 도구 모음에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다.

이제 클립 레벨의 상대적인 조정이 가능해 기존의 조정 사항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게인을 조절할 수 있다. 클립 레벨은 초기화 또한 가능해 이전의 레벨 변경 사항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Fairlight 에디터에서 페이드를 직접 삭제할 수도 있어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이제 원하는 트랙 보기 방식을 저장할 수 있어 음향 엔지니어들이 매번 다시 생성하지 않고도 원하는 뷰를 얻을 수 있다. 레이어 편집 등 예전에는 키보드로만 가능했던 여러 기능들을 이제 패널을 사용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키보드나 오디오 패널을 사용해 자동화 커브 또한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DaVinci Resolve 16.2 주요 기능

- 향상된 Fairlight 타임라인 편집 유용성
- 향상된 Blackmagic Fairlight 사운드 라이브러리
- 효과 및 플러그인 자동 분류 기능 신규 추가
- 향상된 몰입형 3D 서라운드 음향 버스 및 모니터링 기능
- 향상된 Fairlight 오디오 편집 트랙 색인
- 향상된 AAF 임포트/엑스포트 기능
- 오래된 Fairlight 프로젝트 불러오기 기능 향상
- 오디오 믹싱 및 FairlightFX 필터와 관련된 여러 기능 향상
- Fairlight 콘솔 오디오 에디터의 주요 기능 개선
- Fairlight 콘솔 오디오 에디터의 트랜스포트 컨트롤 개선
- 타임라인 로딩 및 전환 등의 신규 편집 기능
- 더욱 빨라진 미디어 풀의 클립 복사 및 붙여넣기 속도
- 스마트 필터 등의 신규 색보정 기능
- 신규 카메라 및 표준을 위한 파일 포맷 지원 기능 개선

대대적인 Fairlight 오디오 기능 개선의 일환으로 오디오 에디터 트랜스포트 컨트롤 역시 대폭 개선되었다. 트랙 검색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동한다. 사용자가 오디오 에디터 패널에서 타임코드 입력 창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으며, 높은 프레임레이트의 타임코드를 위한 지원 기능이 추가되었다. 타임코드 입력 기능에서 현재 CTI 지점에 맞는 값을 지원하기 때문에, 설정된 타임코드가 아닌 타임라인의 현재 위치에 따라 플레이헤드를 움직일 수 있다.

또한 '00'을 입력하는 대신 ':'(콜론) 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콘솔 페이더의 마스터 필을 통해 사용자가 모든 트랙을 버스 페이더에 전송해 빠르게 믹싱할 수 있다. 하드웨어 패널에 있는 회전식 컨트롤의 정확도뿐 아니라 마우스 및 보조키를 사용한 제어 정확도 역시 높아졌다. 사용자가 Fairlight 에디터의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아이콘 또는 텍스트 라벨만 나타나도록 할 수도 있다. 구형 Fairlight 사용자들은 기존의 친숙한 Fairlight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 있다. 플레이헤드를 앞뒤로 넘길 수 있는 미디어 좌/우 선택 키를 지원해 타임라인을 좀 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